

무안군립미술관 門 열긴 여나?

군-의회 미술관 명칭 싸움... 완공 9개월째 방치 11월 큐레이터 채용, 내년 1~2월 중 개관 계획



리감독 역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학예 연구사(큐레이터)를 아직 구하지 못해 개관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전남도에 확인한 결과 뒤늦게 이달에서야 학예연구사를 뽑아줄 것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오는 11월께 학예연구사가 채용되면 운영방안과 개관전 등 계획을 세워 내년 1~2월중에 개관할 계획이다. 주민 A씨는 "타 지역에서는 지역

연고가 없는 작가들의 이름을 딴 미술관을 유치해 문화명소로 가꾸고 있다"며 "군과 군의회가 원만히 합의해 하루빨리 미술관을 개관, 지역의 문화인프라를 가꾸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관광자원을 스스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양주시는 고흥출신 천경자 화백의 작품을 전시하는 '천경자 미술관'을 건립했으며, 제주도는 이복출신 이종섭의 이름을 딴 미술관을 개관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국내 대표화가인 오승우 화백의 작품을 기증받기로 하고 세워진 '무안군립 오승우미술관'이 건물 완공후 9개월여가 지나도록 개관을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9일 무안군에 따르면 국비 16억원, 군비 25억원 등 총사업비 57억원을 투입해 삼향면 왕산리에 지하 1층·지상 2층(연면적 2천744㎡) 규모의 미술관 건립공사를 지난 1월 마쳤다. 그러나 미술관 명칭문제와 학예연구사 채용 등 문제로 인해 건물과 부대 토목공사를 마치고도 개관이 늦춰지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전남 예술계를 대표하는 오승우 화백과 국내의 유명 예술인, 향토 작가의 예술작품을 전시하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지난 2004년 오승우 화백과 157점의 작품

을 기증받기로 협약을 맺었다. 당초 무안군은 미술관 명칭을 '무안군립 오승우미술관'으로 개관하려 했으나 군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무안군의회는 지난 5월 17회 무안군의회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도중 결번에 가까운 예산이 무안군비에서 지출되는 점과 오승우 화백이 무안출신 작가가 아닌 점을 들어 군이 추진하는 미술관 명칭을 문제삼은 것이다. 특히 오승우 화백의 작품 100여 점이 목포시 문화회관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장중인 점을 거론하며 전시 특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함께 미술관 건립과 관련해 무안군의 준비소홀과 함께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도 부실한 전남도의 관

목포자연사박물관 소장표본 국가생물자원 DB구축 선정

목포 자연사박물관 소장표본이 국가생물자원 DB구축 지원대상 선정됐다. 9일 목포 자연사박물관은 "산림청 산하 국립수목원에서 추진 중인 국가생물자원 DB구축 지원대상에 최근 선정돼 국가예산으로 박물관 소장 곤충표본에 대한 DB를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DB구축사업은 전국 연구기관에 산재해 있는 생물자원 중 국가적으로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곤충과 식물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국가생물자원 확보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국립수목원은 목포 자연사박물관 DB 구축을 위해 입력PC, 촬영장비, DB소프트웨어와 촬영, 입력작업을 지원하게 된다. 또 DB구축 후에는 국가생물종 지식정보시스템(www.nature.co.kr)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목포 자연사박물관은 이번 사업추진을 위해 8천여점의 소장 곤충표본에 대한 채집지, 채집자, 채집일자 등 표본정보와 표본당 2매의 사진을 촬영 후 전산화한다. /목포=이상성기자 stlee@

진도홍주, 정열의 나라 스페인에 첫선

'한국 식문화 홍보 행사' 공식 만찬주로

진도 전통민속주인 '진도홍주'가 스페인에 첫선을 보인다. 진도군은 "다음달 5일 스페인주재 한국대사관 주관으로 열리는 '한국 식문화 홍보 행사'의 공식 만찬주로 진도홍주가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각국 외교사절단을 비롯해 현지 농산물 유통업자, 언론사, 여행업자, 유명 요리사 등 4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동안 진도군은 철저한 품질관리로 고급 위스키와 동등한 수준으로 평가받는 군수품질인증 진도홍주 루비온의 소비층 저변확대와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우리나라 전통주 최초로 매년 7월 7일을 '진도홍주의 날'로 제정하고 홍보문화 제작, '홍주 송' 개발, 각종 주류박람회 참가 등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쳐 호평을 받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붉은 색상을 유난히 좋아하는 '정열의 나라' 스페인 국민들의 전통춤 플라멩고와 루비온의 매혹적인 진도홍주의 환상적인 조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태양초 고추시장' 활성화 총력

영광군, 시장 진입도로 개설... 상인회 홍보 나서

영광군이 지난해 12월 개장한 '태양초 고추특화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군은 고추시장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 광주~법성간 4차선 도로에서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 개설을

추진 중이다. 또 고추시장 상인회와 구(舊) 고추시장 상인회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활성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주민들을 상대로 고추시장 이용을 홍보하고 나섰다. 영광군 관계자는 "태양초 고추시

장이 전국 최고의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양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영광군은 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해 영광을 신하리 태양초 고추시장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12월 개장했지만 진입도로 완공이 늦어진데다 영광을 구(舊) 우시장 인근에 조성된 구 고추시장이 활성화되면서 9개월째 외면을 받고 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해바라기, 가을 나들이객 유혹

9일 광산구 첨단1동 해바라기 동산을 찾은 나들이객들이 가을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첨단1동사무소는 공한지 2만6천㎡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증한 해바라기와 코스모스 씨앗을 파종해 꽃밭을 조성했다. <광산구 제공>

장성, 전국 첫 '공장입지 유도지구' 지정

황룡면 16만여㎡... 난개발 방지·입주기업 활성화 기여

장성군 황룡면 회사촌 일대의 무분별한 난개발과 부족한 공장 용지난이 해소되게 됐다. 9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 8일 황룡면 회사촌 일원 16만5천371㎡가 전국최초로 '공장입지 유도지구'로 지정됐다. '공장입지 유도지구'는 공장설립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사전에 지정, 개별공장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

도로 군은 지난 1월 회사촌 공장입지 유도지구 지정을 위한 MOU체결 이후 8개월여 만에 지정 승인했다. 군은 이번 공장입지 유도지구 지정 승인으로 연접개발 제한이 해제돼 기업의 투자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황룡면 회사촌 일대는 수년 전부터 11개 기업이 입주해 가동중이 있으나 연접개발 제한으로 인해 신규

기업입주나 기존 기업의 증액투자가 제한받고 있었다. 또한 건폐율과 용적률이 40~60%, 100~150%로 각각 상향 조정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따른 법률에 따라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장성군 관계자는 "앞으로 공장입지 유도지구 지정 가능지역을 추가로 발굴, 지정해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홍호기자 yongho@

새 얼굴

"산림의 미래가치 창조에 매진"

황 권 순 신안군 산림조합장



"산림조합이 지향하는 산림의 미래가치 창조에 매진하겠습니다" 산림조합 역사상 처음 실시된 직선제 신안군 산림조합장에 무투표 당선된 황권순(59)씨는 "조합원의 뜻이 반영된 사업개발과 정책수행으로 건실한 조합 운영 및 경영수익을 창출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신안 비금 출신인 황 당선자는

신안군 청산리과장, 환경녹지과장, 압해면장, 팔금면장, 환경공원과장 등 39년간 공직에 몸을 담으며 신안 지역발전엔 헌신했다. 한편 신임 조합장 임기는 오는 10월 17일 이후 취임식과 함께 4년간 맡게 된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해양환경 저해사범 목포해경 특별단속

목포해양경찰서는 이달말까지 바다 생태계 및 환경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6대 해양환경 저해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규모 불법 행위에 대한 첩보수입에 주력하는 한편 국책 사업장의 공사 매립 등에 대한 현장 확인을 강화하고, 선박 및 임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 오염물질을 연안에 무단 방출하는 행위, 육상 폐기물의 해양배출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목포=대성수기자 dss@

구서면사무소 | 새마을사업추진위원회 | 한국고출 | 한국고출 | 한국고출

두번 슬프게 하지 앙갚습니다.

프리드

문의처	1566-4499
주 소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 1566-4499
대표이사	김영환
전화번호	1566-4499

인대중압상조 | 1566-4499